

선생님은 기성품이 아닙니다

박 동섭(littleegan@gmail.com)

먼저 처음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누구든지 존경할 수 있는 선생님”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선생님은 ‘멸종바로직전’이기는 커녕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지 않게 되어 버렸다’라고 불평을 토로해도 어쩔 수 없고 그것으로 어떤 사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논리로 ‘선생운’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라는 것은 저쪽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 박동섭군 오늘부터 내 제자가 되게나! 나아말로 자네가 대망하고 있었던 ‘좋은 선생’이야.”

“와 정말입니까? 만세!”

와 같은 심플한 만남을 기대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백마를 탄 왕자님이 나타나서....”와 같은 것과 동종(同種)의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생은 당신이 찾는 것입니다. 스스로 발이 닿도록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눈을 크게 뜨고, 선생을 찾아서 지난한 여행을 한 사람에게만 선생과 만날 찬스가 찾아옵니다. 팔짱을 끼고 낮잠을 자면서 ‘좋은 선생’의 도래를 기다리는 뻔들거림을 해본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경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는 것은 ‘연인’과 비슷합니다.

사귀게 된 연인을 두고 “저 사람 정말 최고야!”는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듣고 ‘앗 이걸 아니다’라는 경험은 여러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좋은 거야. 그런 넘치얼굴이” 같은 혼잣말을 중얼거린 경우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그래도 본인이 좋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냐”하고 쿨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연애망상’ 덕분에 인류는 오늘날까지 번영해왔습니다.(번

영'인지 아닌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식'이라고 말을 바꿀까요?)

'똥보'가 '글래머'로 보이고 '음울함'이 '우수에 찬 모습'으로 보이고 '낭비벽'이 '대범함'으로 보이고 '결벽증'이 '치밀함'으로 보이고 마는....와 같은 행복한 착각 덕분에 대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더라도 어떤 비뚤어진 성격이라도 한 명 당 배우자가 배당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전원이 망상의 마법이 풀려서 동일한 객관적 심미적 기준으로 이성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연애라는 것은 이러쿵저러쿵 말들 하지만 나에게서 이 사람이 가장 멋지게 보인다는 객관적 판단을 확고하게 무시한 상태에서 밖에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계최고로 보이고 마는 '오해'의 자유와 심미적 기준의 다양성(라기 보다는 근거가 없는 '엔터리'이죠)에 의해서 우리 인류는 일단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생물종이라는 것은 다양성을 잃어버리면 멸망해버리기 때문이죠.

물랐습니까?

지구상에는 무수한 생물종이 있죠. 왜 이렇게 다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물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에 따르면 종이 다양한 것이 생태계가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바나의 사자는 말도 얼룩말도 둘 다 잘 먹죠. 만약 말만이 먹을 수 있는 풀로 인해 감염되는 전염병으로 주위에 있는 말이 전멸했다고 합시다. 하지만 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을 먹는 대신에 "자 그러면 얼룩말을 먹을까!"로 끝날 일입니다. 그리고 얼룩말이 그 풀을 먹지 않았던 것은 '웬지 당기지 않았다' 정도의 이유이기도 한 거죠. 허나 이 '웬지'에 의한 행동의 차이에 의해서 사바나의 생태계와 식물연쇄는 치명적인 데미지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생물에 관한 대부분의 경우 '오해'가 만연하는 것이 단일한 '정답'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 보다 자신의 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앗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죠.

"매운 여뀌 잎을 먹는 벌레도 체멋이다" 이야기 였죠. 아니 이 속담 모릅니까?

그렇습니까?. 최근 이런 말 잘 사용하지 않죠. '여뀌 잎'이라는 것은 식용의 풀입니다만 매우 맵습니다. 하지만 벌레 중에는 이 여뀌 잎을 아주 좋아하는 벌레가 있죠. 하여 보통 벌레가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사람의 기호는 다양하다는 것을 특히 연애관계에 빗대어서 만든 속담입니다. 어떻습니까? 일본어 어휘가 하나 느꼈지요.

다름 아닌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 비치는 '사랑하는 사람'의 용모가 어떠한 것인지 주위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한다'라는 강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조형된 일종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연애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환멸과 쾌락과 절망은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동일한 리얼리티로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연애라는 경험의 가장 훌륭한 점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세계최고의 연인’을 언젠가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은밀하게 마음에 품고 매일 살아 갈 수 있는 셈이죠.

선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저 선생님 최고야! 나의 평생의 스승입니다”라는 것은 일종의 팔불출 같은 거죠. 연애와 똑같이 ‘오해’ 혹은 ‘망상’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스승에 대한 이러한 오해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들은 한 명 한 명 고유한 성숙의 프로세스를 밟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연애가 오해에 터하듯 사제관계도 본질적으로 오해에 기초합니다.